

69호, 2007.9-10

책을 열며 /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 발표를 보고 / 홍근수

시사 / 남북정상회담 9.19 공동성명 2단계 합의 및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의미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투쟁의 절박성 / 유영재

특집 / 일꾼 수련회 반미의 봉화가 오른 광주에서 하나가 되다 / 최경순

사람 / 평통사와 늘 함께하겠다는 순수한 청년 - 부천평통사 노칠성 회원 / 박숙경

중앙소식 /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 그 비밀을 벗기다! / 김판태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대동강에 두고 온 누이 - 칠순의 투사 유호명 할아버지 / 송태영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광주 일꾼전진대회에 다녀와서 / 최희준

남북 정상외의 공동선언 발표를 보고

상임공동대표 홍근수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우선 두 정상외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한다.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이번 합의로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평화, 번영, 통일 향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남북 정상은 '6·15선언을 고수하고 구현'하기로 다짐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합의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한다. 또한 '남북 관계의 발전을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각기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진일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정상외이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여 불가침의 의무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나 서해상의 무력 충돌방지를 위해 해주 경제특구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에 합의한 것 또한 의미가 깊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서해해상경계선, 북방한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모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신호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아울러 그간 당사자 논란에 중지부를 찍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의 책임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도 높이 사야한다.

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어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정상회담에 기대가 높았던 우리는 양 정상외의 선언에 아쉬운 점이있다.

우리는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한다거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북미, 남북 사이의 군축에 기본적 합의가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이 같은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영역, 북미 사이의 관계에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6자 회담의 눈치를 살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미국의 눈치를 살폈는지 모른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근본 위협이 되고 있는 미군의 철수는 불가피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대통령은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한 생각이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지레 질겁을 하여 그것을 극복하려는 생각을 못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나 현재 남한이 보이고 있는 국력신장 등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상황을 인정 못하는 결과다.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북이 남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군 당국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마당에 수구냉전 무리들이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상황

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러한 상황에 위축되어 군축은 생각할 수도 없었으리라.

그러나 '친일'을 경계하듯이 '친미'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살 길은 군축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홍익인간의 전통을 따라 평화 지향적으로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9.19 공동성명 2단계 합의 및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의미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투쟁의 절박성

미군문제팀장 유영재

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가 10월 3일에 발표된 데 이어, 이튿날인 10월 4일,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합의되었다.

여러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두 개의 합의가 하루 사이를 두고 나왔다는 것은 지금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전환기라는 점을 웅변해 준다.

이 글에서는 두 합의의 의미를 간략히 짚어 보고 우리의 실천적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의 의미

합의문에서 ‘북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고,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또 북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겠다는 공약을 북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완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 에너지를 북에 지원하고,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 회담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북으로서는 현존 핵시설의 완전 폐기로 나아가는 중간단계 합의이자, 핵무기 폐기의 토대를 쌓은 합의라 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향한 중간단계 합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미 양국이 이 합의를 연말까지 온전히 이행한다면 쌍방의 핵심 요구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2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는 또다시 우여곡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 당국자들이 밝힌 대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9월 13일, “한미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공동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3차 또는 4차 정상회담도 예견되고 있다.

내년 대선과 부시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시간에 쫓기고 있는 부시정권은 자신의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를 보려는 것 같다. 매우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의 핵심 쟁점은 주한미군 문제

여기서 핵심 문제는 북이 미국의 공격의 위협을 무릅쓰고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확고한 담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의 한 기고(최현철,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한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 「정치법률연구」, 2007. 2호(6월 7일), 과학백과사전출판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완전 포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불가침조약과 이를 담보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군대의 철수는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 명시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전면전을 치렀고 50년 넘게 전쟁 위협을 당해 온 북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따라서 북으로서는 대북 적대의 실체인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 받지 않고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믿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조건에서 핵무기를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상 한미동맹 폐기를 의미하고, 한반도에서 자신을 패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의 존재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핵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는 북미 쌍방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단계의 해결 후 북미관계 개선이 교착 또는 장기화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북은 경제적 문제를 포함하여 총체적 힘의 관계에서 어려운 지형에 처해 있고, 미국은 자국의 핵패권 유지의 도구인 핵확산방지(NPT)체제 붕괴 등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외교적 성과의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쌍방이 상호 관심사의 해결을 미루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북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맞서 핵개발 등 공세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로 미국을 50년 이상 회피해왔던 평화체제 협상 테이블에 앉힘으로써 현 정세의 주도권을 쥐었다. 그러나 전략적 힘의 차이 때문에 이후에도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따라서 어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인가는 정세의 역동성과 북미관계, 민족자주세력과 한미동맹세력의 힘의 관계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의미

이번 남북정상의 선언에는 통일의 장전인 6.15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조치와 관련된 8개항이 담겨 있다.

이번 선언은 6.15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실행력을 담보한 합의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이번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함으로써 민족자주의 통일 원칙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제시하였다. 남과 북은 이를 근거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선언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는 6자회담을 통해 전개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와 관련

한 논란에 중지부를 찍고 미국이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점을 내외에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이번 선언은 3항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불가침 의무의 준수를 재확인하고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와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기 위한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합의하였다.

선언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서해상 평화수역 설정을 위해서는 NLL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3항은 남북이 군사적인 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이다. 3항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의 노력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을 이루어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다.

넷째, 이번 선언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안변과 남포에 조선험력 단지 건설 등에 합의함으로써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정상은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기로 하고,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총리회담 및 경제부총리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번 선언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번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며 자주적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협정 정세의 요구에 못 미치는 남북정상의 합의

하지만 이번 선언은 '2007년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하는 정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6.15공동선언을 한 단계 넘어서는 합의를 내와야 했다. 그러나 회담에서 양 정상은 6.15선언 2항에 의거한 통일방안의 진전이나 통일(준비)기구 구성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민족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북미간의 군축에 관한 기본방향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선결적 문제이자 시급한 현안인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도 못했다.

이처럼 양 정상의 합의가 정세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남측 정부가 미국의 집요한 압력과 한미동맹세력의 반복·반통일적 발호에 굴종한 데 있다.

이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미동맹세력의 반평화적·반통일적 압력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한미동맹 세력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폐기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에 힘을 집중해야

올 연말을 전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4자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 경우 핵심쟁점은 주한미군 철수로 모아질 것이다.

여기서 남측 민족자주세력의 과제가 나온다. 즉,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평화협정 체결'이 그것이다.

북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체제의 확고한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이다. 남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남한을 지배하는 물리적 실체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문제이자, 60년 동안 평화를 위협해 온 군사력을 없애는 길이며, 통일의 결정적 걸림돌을 치우는 일이다.

이처럼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지만,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장래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이 침해될 것이다. 미군이 주도하는 전쟁에 휘말려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가 항상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며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에 대한 파괴와 수탈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자주세력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최소한 향후 수십 년의 역사를 규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정세의 엄중함과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의 절박성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켜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투쟁기구’를 건설하여 대중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국민 여론은 주한미군 철수가 대세

그런데 시민사회운동 일각에서조차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 속에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를 통한 장기주둔을 현실적 대안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한미동맹세력이 안보문제에 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반복 대결의식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현재 시점의 남쪽 상황에 매몰된 일면적이고 고정적이며 패배주의적 사고의 결과다.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을 당해온 북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또한 남측의 경우, 9월 22일의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우리 국민 62%가 주한미군의 즉각적(7%) 또는 단계적(55%) 철수를 바라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구체화되는 데 따라 정세는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우리 국민의 미군철수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부 보수적인 군 관련 연구자까지도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 여론은 주한미군 철수가 대세이며 정세 변화에 따라 이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모아내고 그것을 투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주도면밀한 준비다.

작전통제권 완전 환수 투쟁은 지금 당장 벌여낼 주한미군 철수투쟁!

- 11월 초까지 SCM 대응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내자!

당면해서는 대중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으로 인한 피해와 굴욕을 널리 알려 여중생투쟁 때 대중이 떨쳐 일어섰던 것처럼 대중이 주한미군 철수를 자신의 문제로 알고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0월 중순에 열리는 한미 국방 고위관료가 대표로 참가하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11월 초순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벌임으로써 한미당국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의 대중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한미양국의 환수 계획이 매우 기만적이며 평화협정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을 널리 폭로하고 작전통제권이 완전하고도 즉각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평통사의 모든 회원이 1만인 선언 등 투쟁에 적극 참여하자.

반미의 봉화가 오른 광주에서 하나가 되다!

- 일꾼 전진대회 참가기-

정리 / 부천평통사 최경순

9월 15일 오후 2시, 남부 지방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태풍 소식에도 불구하고 평통사 일꾼 전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천 부천의 식구들을 실은 버스가 광주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광주에 도착하여 오순도순 저녁식사를 한 후 청소년 수련원으로 들어가자, 광주전남 평통사에서 마련한 환영 플래카드와 준비팀의 정성이 보이는 벽장식과 구호들이 일행을 맞았습니다. 장시간 거리이동으로 인한 피로감이 말끔히 날아갈 정도로 힘을 돋우는 일이었습니다.

숙소 배정을 받고 숙소에 짐을 내린 후 각 지역 회원들과 평통사를 아끼시는 각 단체분들이 강의실에 자리한 8시 30분부터 곧바로 장도정 부장의 사회로 본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김종일 사무처장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투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평통사의 실천과 투쟁 모습을 담은 영상을 감상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8.15 행사 참가와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 저지 실천에 관한 것이었는데, 항상 즐겁고 신나게, 또 당차게 실천하는 회원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든든하고 정겨웠습니다.

영상 감상에 이어 참가 단위, 지역 단위별로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한 후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광주에서 결의했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나로부터 결의하여 주한미군 몰아내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등의 구호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졸지 말자’를 크게 복창하면서 강의를 듣기 전의 마음 자세를 다잡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고영대 평화통일 연구소 상임 연구위원님의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고 위원님은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달려 온 일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강연내용입니다.

“대중들의 힘을 이끌어내어

한미동맹의 벽을 무너뜨리자!”

평통사는 그 동안 평화협정 관련 학습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그러면 과연 현재가 평화협정의 시점이 맞는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자.

통일부 관료가 한 토론장에서 ‘지난 1월 북미 베를린 회담에서 모든 것이 합의 되어 통일부 주무 부처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 말했다. 겉으로 밝혀지고 있는 정도만도 통일부 조차 따라가지 못 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세가 왜 도래했는가. 먼 훗날의 일만 같았던 평화협정이 목전에, 한반도에 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기세로 다가 와 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전 미국방장관 럼스펠드는 재임 시절에 자신의 집무실에 남쪽보다 전기가 덜 밝혀진 북쪽이 보이는 한반도 야경사진을 붙여놓고 '이런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되어야 한다'고 수시로 다짐을 했다 한다. 켈리 차관보는 '6자 회담에 미국이 나가는 이유는 6자 회담으로는 북핵 문제를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고했다. 이처럼 북에 대해 강압 정책을 펴던 미국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북의 외교력과 성공적 핵 보유가 원인이다.

북의 외교력은 럼스펠드가 북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도 정세를 잘 읽는다는 뜻으로 '카드 놀이를 잘 하는 나라'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켈리가 북의 핵 개발을 눈치채고 강압 정책을 썼을 때 북은 강압에 대해 무릎을 꿇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오히려 '전쟁에는 전쟁으로'의 입장을 가지고 핵무기 개발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실제로 북이 핵을 보유한 것은 군사적 강압이 강해진 부시 정권 아래에서 였다. 부시 정권에게는 이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북 핵 보유의 군사적 측면을 보자면, 첫째, 이라크의 경우처럼 현지 지휘 통제 본부를 먼저 파괴하는 방식으로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북이 북한 상공에서 핵무기를 터뜨리는 방식으로 미국과 남한의 첨단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다. 재래식 무기와는 달리 첨단 시스템은 핵 폭발로 전자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동해와 남해안의 원자력 발전소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시설 파괴를 하거나 일부 군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셋째,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증원 배치되는 미군과 장비 유입을 차단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이처럼 핵무기가 미칠 위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방어용이지만, 이를 무시하고는 승산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북과 평화 공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세가 지속성을 가지는가.

이라크나 아프간은 내전중이어서 미국이 쉽게 침공했음에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비해 북은 전 민중이 일치단결 되어있다. 이라크와 아프간은 보호장벽이랄 게 없었으나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원치 않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막지역인 이라크 아프간에 비해 북은 산악지방이므로 공격하기에 지리적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핵 보유가 갖는 군사적 유리점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미국 정권이 어떻게 바뀐다 해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은 평화협정의 상과 통일과정과 방안, 군축 등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이므로 협상과 투쟁을 통해야만 얻어낼 것이 있다는 가변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속에서 남측 운동 진영의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정세가 변했어도 미국은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빼앗긴 주도권을 반드시 다시 찾으려 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권을 찾으려 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과 신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동맹이란 잠재적인 전쟁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내용과 역사적 배경을 볼 때, 그나마 1차적으로는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한미동맹은 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넓혀지게끔 한다. 전략적 유연성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한반도 이내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제한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행사하기 위한 전력을 증강하고 더 크고 강력한 무기를 도입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세계 최강의 무기 체계인 KDX-III만 보아도 과거 한미동맹과 다른 대결적이고 파괴적이며 공격적인 동맹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한미동맹은 평화협정의 정세와 정면 배치, 파탄으로 몰아 갈 수 있다.

작전계획5027은북의 체제 붕괴와 인민군 괴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타국 침략 불가와 평화통일을 명시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방어적, 평화적 통일을 지원하는 국방 목표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양국은 미국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군사 작전계획을 만들어내고 있다. 작전권이 환수되어도 동맹관계가 유지되는 한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교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신한미동맹전 교리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전쟁목표/ 전략/ 작전/ 전술/ 작전계획/ 무기체계 등을 모두 운용하며, 한국군에는 전술/ 작전계획/ 무기체계에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무기체계 운용도 완전히 허락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운용되는 무기체계들도 소유만 한국으로 되어있을 뿐, 미국이 알려주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체계가 아닌 미군의 무기체계라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쟁에 한국은 돈 대주고 젊은이들의 목숨까지 대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군은 장사정포에 의해 동두천 일대 미2사단 괴멸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장사정포의 목표가 미군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한편, 미군 후방 배치의 이유가 되고 있다. 미군은 이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MLRS라는 포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것의 관리가 2005년에 한국군으로 넘겨지면서 2조원의 예산과 추가 도입비 10조원이 요구되고 있다. F-15K 도입 비용의 2배에 해당되는 이 비용을 공격대상이 되지 않는 한국군이 떠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과 한국은 미군대신 피흘리고 목숨을 잃게 되는데, 미국은 배후에서 조종만 하게 된다. 이런 한미동맹을 100년간 지속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 자체로 유연현장에 위배되는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 한국군이 끌려갈 경우 한국군이 파견된 해당 국가가 적대시하고 공격 대상으로 여길 나라는 어디가 될 것인가. 바로 한국이 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아태 지역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나토의 영역 확장, 아시아 쪽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미국-호주/일본-호주 동맹들을 나토에 연계시키고 있으며 한국, 호주, 일본, 핀란드,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세계적인 포위망 형성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르는 신한미동맹을 유지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고, 평화협정 정세와도 배치되는 것임에도 미국은 이를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와해시켜야만 한반도 평화체계가 수립될 수 있다.

바로 평택투쟁이 바로 한미동맹을 끊는 고리였으며, 경험했듯이 평통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대중들을 조직하고 대중들로부터 힘을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대중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이미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세력도 38%대에 불과하다.

우리는 매항리 투쟁과 여중생 투쟁에서 대중들의 밀바탕엔 분노와 민족자주의식이 깔려 있음을 보았다. 이런 대중을 조직하고 움직이면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다.

한미동맹의 벽은 그리 높지 않다.

미군이 목숨걸고 지키려던 매항리 폭격장도 폐쇄시켰다.

롤리스의 발언에 의하면, 효순이 미선이 사건 투쟁을 통해 작통권 환수도 고려되었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대중적 투쟁은 반드시 그 성과가 돌아온다.

이러한 지난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들을 이끌어내어 한미동맹을 반드시 무너뜨리자.

북은 평화협정이 북미간에,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정전협정 60항에 의하면 외국군대 철거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1954년, 정전협정에 명시된 ‘한급 높은 정치회의’가 소집되었으나 미국이 끝끝내 주한미군 철수와 통일방안에 합의하지 못하여 결렬되었다. 미국은 후속 정치회의 또한 거부했다.

이후 여러차례 시도되었으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계속해서 결렬된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미국과 한국정부 때문이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종전 이후 체제에 관한 평화선언과 평화체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관변 연구자 조성렬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가운데 종전선언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운동권 내에서조차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과정으로 미군이 철수할 것인가에 관계없이, 평화협정은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같은 길이어도 함께 가면 더 넓고 힘찬 길이 됩니다!

오후 11시 30분,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과 평화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 주는 강연이 끝나고 조별 토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회원들은 대중들에게 알려낼 방법을 고민하거나 스스로 어떻게 혁신해나갈 것인지를 고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를 상징하거나 발표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토론과 발표 준비 시간이 끝난 새벽 1시 부터는 각 지역별/ 조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를 한 부천은 쉽고 간단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하겠다는 의미로 ‘미군 나가’ 라는 아카펠라와 퍼포먼스를, 서울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이 쓰여진 한반도기를 회원들의 힘으로 받치면서 한 사람씩 결의를 발표하는 상징의식을, 대구와 경기남부 등 연합 조에서는 지역 조직 건설 결의를, 인천과 대전충남에서는 2천명 이상 선언 조직과 평통사 조직확대 카드섹션과 결의 발표를, 광주전남은 조직 활성화에 대한 토론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강당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조별 발표가 끝난 후, 단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골든벨 퀴즈를 박종양 부장이 진행했습니다.

단결의 시간을 마칠 무렵, 야심한 시간에 광주까지 달려오신 이규재 범민련 의장이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통사가 특색있게 통일운동에 임해왔음을 인정하기에 늦은 시간임에도 달려왔습니다. 평통사는 참 올바른 활동을 해 왔습니다. 만약 평통사와 여러 단체들이 통합해서 실천한다면 더 큰 힘을 낼 수도 있겠지만, 꼭 통합하지 않아도 강고한 연대를 할 때, 통합 못지않게 큰 힘을 낼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데도 우리는 늦게 가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견결한 연대 연합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단체가 동의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동의하는 몇 단체만이라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어야, 우리 민족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평화협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진 뒤풀이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새벽까지 끊이지 않는 담소로 채워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대강당에 모여 굳은 몸을 풀기 위해 이유빈 율동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전체 율동을 배우고, 서로의 어색한 몸짓을 보며 웃기도 하면서 간밤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밤 단결의 시간에 못 했던 글자 퍼즐 맞추기를 진행했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어제 못했으면 그만이지 꼭 해야돼나’ 는 원성도 있었지만 막상 팀을 나누어 퍼즐 맞추기에 들어가자 발군의 승부욕으로 눈을 빛내며 열심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도 이런 승부욕과 적극성을 가지고 만들어낸다면 더 빠르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전 9시 30분 숙소를 출발하여 망월동으로 이동하는 동안 크고 작은 코골이 소리가 엔진 소리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오전 10시, 망월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난 밤부터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에서, 임낙평 광주 시민연대 의장 안내로 망월동 참배를 하였습니다. 군데군데 훼손된 구묘역의 모습을 보면서 착잡함을 떨구어낼 수 없었지만, 열사들의 묘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물건들과 꽃들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그분들의 염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흐르는 가운데 돌아 본 신묘역.

신묘역에서 참가자들은 윤상원, 박기순, 박관현 등 광주 7열사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변연식 대표님의 시 낭송이 울리는 가운데 참배를 했습니다.

차가운 빗속에, 차가운 대리석 틀 안에 자리잡아 구묘역보다 차갑게 느껴지던 신묘역은 유일한 참배객인 평통사 회원들의 조용하지만 뜨거운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오전 11시, 마지막 일정으로 5·18 묘역 영상실에서 평통사 일꾼 전진대회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종렬 광주전남 평통사 대표의 추모사와 김종일 사무처장의 결의발언, 그리고 홍근수 상임대표의 마무리 말씀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각자의 결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시 30분, 전체가 함께 하는 점심 식사를 한 뒤,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 굶은 빗속에서도 서로 인사에 인사를 거듭하며 각자 지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전진대회에 참가했던 회원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각각의 지역으로 돌아가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광주항쟁의 정신을 새겨 반드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는 결의가 담겨졌습니다.

배종렬 대표 추모사

5·18 영령들이시여, 항쟁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전시작전권까지 움켜 쥔 미국의 실체를 광주 항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을 처단하는 것이 영령들의 한을 푸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 진정한 한을 푸는 것입니다.

평통사의 수가 작고 미약하나, 미군 없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힘차게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영령들이여, 미군 없는 세상에 부활하소서.

김종일 사무처장 결의발언

평통사는 오늘 광주에서 생사의 기로를 가를 결심을 해서 도청을 사수했던 열사들의 결단을 배웠다.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서 우리는 자신을 혁신하고 주변을 조직해서 빠른 시기에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일궈내도록 해야 한다.

홍근수 상임대표 마무리 말씀

부시는 2007년 연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의 이 말은 미국식으로 하겠다는 말이고 주한미군 주둔 하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동맹 파기를 반드시 이뤄내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협정이 됩니다. 5·18은 미국을 새로 보기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로부터 2007년 현재는 주한미군 철수를 이뤄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100명이 만 명을 조직하고 다시 10만 명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회원들의 결의 글 발표

‘같은 길이라도 함께 가면 더 넓고 더 당차고 더 힘찬 길이 된답니다.’

‘님들은 우리 양심의 등불,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여 해방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평화협정으로 미국의 영구주둔을 막아내고 주한미군 철수에 목숨걸며 이 땅의 밑거름이 되기를 각오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불씨가 되는 수련회. 변호사로서, 평화협정에 담겨야 할 규정들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꼭 이루어라, 우리의 꿈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평통사 전진대회에 참가 한 100명의 동지들과 함께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의 엄중한 투쟁에 나섰다. 지역 조직을 세워 함께 가자.’

‘가까운 가족들부터 조직하여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신한미동맹 철폐에 힘써야겠다.’

‘반미의 선도 광주 명령의 뜻을 이어받아 미군 없는 평화협정이 꼭 이루어지도록 공부하겠다.’

‘투쟁하는 일상을 갖지 못한 나를 반성해야 다른 사람도 세워낼 수 있다’

이달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 평통사와 늘 함께 하겠다는 순수한 청년
- 부천평통사 노칠성 회원

인터뷰·정리 / 부천평통사 박숙경

노칠성 회원은 부천시의 조그마한 공장이 우글거리는 내동에 터를 잡고 9년째 살아가고 있다.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그는 23세에 이곳으로 올라와 제조업노동자로서, 또 부천평통사의 전신인 통일사랑노동자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그는 일하던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죽어도 평통사와는 떨어질 수 없다는 너스레를 떨며 실직 중이다.

그는 오랜만에 쉬는 시간을 활용해 국가고시시험(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을 준비하느라 이력서를 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회지에 실릴 회원인터뷰 이야기가 건네지고 마주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약간 쑥스러운 듯, 설레이는 표정으로 앉아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박하고 맑은 눈빛 그대로 회지를 통해 만나게 될 평통사 회원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역력히 드러난다.

평통사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나는 어렸을 때 꿈이 없었다. 오로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전부였는데 함께 일하던 용진이형을 통해 단체생활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서 마음을 열게 되었다.

처음으로 전태일 열사정신계승 추모집회에 참여했을 때 대학로에서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함께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은 나에게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참으로 멋있는 일이다.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 후에 효순이 미선이 투쟁이 계기가 되어 주한미군의 만행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고 하루라도 빨리 미군철수와 통일을 이루는 것이 큰 일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통사 활동을 하면서 무엇이 변화되었나?

단체 생활을 시작한지 8년이 흘렀다.

내가 개인적인 삶을 택했다면 아마도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그에 관한 일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평통사에서 분회활동, 실천투쟁, 학습, 사람들과의 관계를 겪으면서 세상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던 내가 지금은 자기 생각, 주장을 말할 수 있게 되고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꾸고 있는 꿈은?

대중적 실천, 활동을 하면서 선배들보다 더 나은 활동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집회

참가, 학습 등 나이 먹어서도 꾸준히 하고 싶다.

가장 기뻐할 때와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나?

2006년 4월 7일 평택투쟁으로 연행됐을 때다.

연행되어 들어갔는데 저녁 9시가 넘도록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고 평일이라 내일 일하러 못가는데 싶어 불안하기도 한 상황에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당한 일이었지만 불안함이 고조되었을 때 밤 10시경 사무장님과 회원들이 면회를 왔다.

회원들의 모습에 기뻐서 눈물이 핑 돌았다. 경찰서를 쩌렁쩌렁 울리는 사무장님의 목소리, 회원들...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는구나!

경찰서를 나올 때에는 어두운 긴 터널을 뚫고 밝은 빛으로 나오는 느낌이었다.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탈퇴한 회원들을 붙잡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이다.

부천평통사의 자랑거리는?

회원들 전체가 다 친구 같고 편하다, 결속력이 강하다는 것^^

평통사에 바라고 싶은 말?

통일이 된 이후에도 평통사가 변혁운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 길에 항상 함께 하겠다.

●●● 인터뷰를 시작할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나?고 묻자 노철성 회원은 “노력하는 사람’ 이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처럼 그는 중단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평통사 활동이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노철성 회원. 회원들의 이 열정이야말로 오늘의 평통사를 만들어낸 힘이리라.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
그 비밀을 벗기다 !!!

회원사업팀장 김관태

2007년 을지포커스렌즈(UFL)투쟁의 꽃은 무엇보다도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 “탱고”(TANGO : Theater Airforce Navy Groudforces Operation)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북전쟁연습의 실상과 그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탱고는 1970년대 설립된 것으로 경기도 청계산 일대 30여만평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1만평의 지하시설을 갖춘 극비군사시설로 알려져 왔습니다. 여기에는 대형화면으로 작전회의를 하는 전쟁룸(war room)과 한반도 상공은 물론 미 본토의 정보까지 받아 볼 수 있는 스킵(SCIP)라는 최첨단 정보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시설들을 통해 컴퓨터 게임하듯이 우리 민족을 살상하는 전쟁을 지휘하는 곳이 바로 탱고인 것입니다.

UFL 연습이 ‘북한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통일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진행되는 대북공격전쟁연습인 것은 이미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또한 ‘UFL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므로 위험하지 않다’는 한미당국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8월 22~23일 한미연합사가 보급창에서 전쟁장비를 작전 지역으로 긴급수송하고 8월 24일 미 제7함대의 기함인 블루릿지호가 평택항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청계산 등산을 하면서도 청계산 옛골마을 등산로 입구에 있는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통사가 대북전쟁연습인 UFL 연습을 지휘하는 이곳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 평화운동 사상 최초로 탱고 앞에서 기자회견, 1인 시위, 등반대회, 촛불문화제 등 대중투쟁을 전개한 것입니다.

대전충남 평통사가 10월 13일 청계산 탱고로 가는 평화기행 사업을 진행하듯이 앞으로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탱고 투쟁을 다양하고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평통사의 활동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투쟁

— 한반도 평화협정 위배하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 촉구 탱고 앞 투쟁 —

지난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평통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한미연합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세계 최대규모의, 북한점령을 목표로 한 전쟁연습입니다.

특히 이번 투쟁은 한국의 반전평화사상 처음으로 전쟁지휘소인 탱고 앞에서 연습기간 내내 반전평화인사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여 우리 민족의 평화를 향한 염원을 알려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규탄 투쟁

평화군축팀장 오혜란

하나, 탕고 주변에 미8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겹쳐있고, 울타리도 분명치 않다. 주민들은 미군들은 수시로 편을 갈라 사격연습을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등산객이 사격장에 잘못 들어섰다가 큰일 난 뺨 한일도, 텃밭에서 일하는 주민들을 사이에 두고 사격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 아무런 안내 표지도 없으나, 고속도로와 탕고 출입초소를 바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보통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려면 인터체인지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길을 이용하면 고속도로에서 바로 탕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노라니 미군 차량들이 줄을 지어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반대편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양재방면 고속도로에서도 바로 탕고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탕고를 오가는 미군을 위한 특혜가 아닐까합니다.

셋. 훈련기간 내내 빨간 머리띠에, 총구에 빨간색 고리를 끼운 한국군들이 보입니다. 한국군 훈련은 연기하기로 한 결정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부의 결정이 한미연합사가 주도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 발표는 생색내기 위한 것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이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동강에 두고 온 누이1) - 칠순의 투사 유호명2) 할아버지

유호명 할아버지(69세)를 만나기 위해 난생 처음 국방부를 찾아갔다. 이날 새벽 배형규 목사에 이어 심성민 씨가 탈레반에 의해 살해되었다. 국방부 민원실 앞에선 평통사 주최 <제 70차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다. 아프간 사태 때문인지 몇몇 외신들이 집회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정문 너머 전투병의 동상이 보였다. 집회는 점심시간에 맞춰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글거리는 피약별로 등줄기에 땀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기름때 묻은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종로, 청계천, 장안동 등지의 카센터에 자동차 부속품을 납품하는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일을 멈추고 근처에 트럭을 주차했다. 김칸은 물론이고 운전자 옆 좌석에도 부속품들이 가득 쌓여 삶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장사 하면서도 항상 통일 생각을 한다고 한다. 방송을 봐도, 신문을 봐도 통일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눈을 돌릴 수가 없다.

그는 할아버지라는 표현이 무색하리만큼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활기찬 표정이다. 실제 할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한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가 단단한 체구에서도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순박함과 천진난만함이 묻어났다. 매일 집회에 나오기가 어렵지 않냐고 여쭙었다.

“나이 드니까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잘 안 따르지. 힘들어서 이런 운동 이제 그만하자는 생각도 드는데, 일이 생기면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절로 생겨.”

할아버지는 지기이자 동지라고 일컫는 한상준(71세)과 함께 최루탄도 많이 맞고 경찰서 유치장도 많이 끌려다녔다. 서울에서 안 가 본 경찰서가 드물다. 집회가 있으면 만사 제치고 참여한다. 그를 만나기 위해 오늘만도 두 건의 집회에 참가해야 했다. 할아버지는 다음날도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장에 얼굴을 내밀었다.

길을 지나가던 70대 가량으로 보이는 한 노인과 국방부 장교가 집회자들을 샅대질하며 지나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영어를 병기한 피켓과 손플랑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할아버지는 집회에 나오는 일이 생활의 십일조라며 겸손해한다. 십일조라는 것은 수입의 딱 십분의 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첫 번째 것, 즉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에게 겨레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신에게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것인 셈이다. 부인은 매일 집회에 나가 과로하는 할아버지를 걱정도 하고 원망도 한다.

할아버지는 평택 대추리 집회에 자주 나셨는데 경찰 병력이 투입된 날 일이 생겨 대추리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할아버지는 한 번이라도 집회에 빠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롭다. 심지어 악몽도 꾸다. 그가 다니는 교회 조현정 목사는 FTA를 반대해 분신자살한 ‘허세욱 동지도 그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면서 “옳은 병입니다. 옳은 병!”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옳은 병’에 걸리게 된 걸까?

“1989년에 임수경이 텔레비전에 나오던 때야. 한참 통일 바람이 불던 때였잖아. 그때 일하던 중에 우연히 TV를 보는데 임수경이가 ‘우리는 하나다.’라고 부르짖고 어릴 때 뛰어놀던

대동강, 모란봉, 평양시가지가 나오는데 누님 생각이 나면서 충격을 받았지. 그래서 연세대학교 집회에 한 번 가본거야. 거기서 문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열사들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 난 그 전까지 데모하는 학생들 보면 폭도들이라고 했거든. 그 날 정말 통곡을 했지. 김도향의 노래 있잖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딱 그런 놈이었어.”

할아버지는 그날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고 최근 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다. 유가협에서 공로패도 수여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요즘은 유가협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의 부모는 일제하 조선 땅에서 살기 어려워 일본에 건너갔다. 원폭이 투하된 나가사키에서 살았는데 원폭 당시 산에 굴 파고 숨어 다행히 원폭피해는 없었다. 할아버지는 나가사키에서 태어나 광복을 맞이해 귀국선을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 부산에서 평양으로 올라오는 길에 둘째 누님은 일본 교포 남자의 고향인 당진에서 내려 살림을 차렸다. 누구도 그것이 가져올 아픔을 짐작할 수 없었다.

고향으로 올라간 가족은 사동 탄광지대에 살았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석탄 캐는 일을 했다. 전쟁이 났고 국군이 진격해 들어올 때의 일이다. 그때 그의 나이 열세 살이었다.

“언제나처럼 대동강 옆 개천에서 동무들과 미역도 감고 놀고 있는데 군복에 총을 메고 우리 쪽으로 군인들이 오는 거야. 국군 간호장교 대위인 여군 한 명이 앞서고 남자 호위병 서넛이 카빈 총을 들고 뒤따르고. 무서웠지.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어머니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거야. 자세히 보니 당진에 살던 둘째 누이야. 어이구 이 녀석 많이 컸네 그러면서 껴안더라고. 반갑기도 하고, 총을 보니까 무섭기도 했지. 그리고 나서 집에 함께 들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려오더라. 그때 셋째 누님이 둘째 누이가 들어오는 걸 봤대.”

이때 인민군 간호장교 소좌인 셋째 누님은 인민군과 함께 후퇴하지 못하고 집에 숨어 살고 있었다. 인민군 누이는 군의관 장교인 사귀는 남자의 영향으로 간호장교가 되었고, 군국 누이는 어릴 때부터 나이팅게일을 존경해 간호장교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 엄마가 빨리 숨어라 그래서 작은누이는 치마저고리를 입은 채로 장롱과 벽 사이 좁은 틈에 숨었던 말야. 혹시라도 장롱 속이 안 보이게 셋째 누님이 가로막고 있었지. 어머니 아버지는 딸이 오니까 반가우면서도 한편 불안한 거야. 서로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있는 와중에 인민군 누이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온 거야. 둘째누이를 핏줄보다 적으로 생각했나봐. 국군을 보니 반동분자들이란 생각이 들었겠지.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면서 권총을 들고 탁, 나와서 국군 누이를 향해 겨눴어. 국군 누이는 멍하니 서 있고 뒤에 서 있던 호위병들이 인민군 누이를 향해 총을 겨누었지.”

“나는 누나들 다릴 붙잡고 영영 울었지. 금방 누구라도 죽을 것 같았으니까. 자식들은 울면서 바짓가랑이 잡고 말리고, 어머니는 왜들 그러냐고 통곡을 하면서, 절대 방아쇠 당기지 마라, 니들 중 하나는 죽는다, 하나라도 죽는 거 원치 않는다, 당장 총을 내려놓아라, 말리셨는데 그게 어머니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야. 동네 사람들 몇몇은 방에 들어와 있고 문 밖

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방 안 상황이 그렇게 험악했지. 이게 딱 우리 민족의 아픈이고 현실이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국군누이가 호위병에게 총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럴 수 없다고 머뭇거리자 단호하게 재차 외쳤다. “당장 내려놓지 못하겠어!” 그제서야 호위병들이 총을 내려놓았다. 작은 누이도 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모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누이에게 말했다. “오늘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작은 애를 도망가게 하자. 동네 사람들도 다 못 본 거다.” 국군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누이는 치마저고리 차림 그대로 뒷간으로 난 쪽문을 박차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것이 가족이 목격한 누이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나는 그때 국군과 인민군 그런 차이도 몰랐어. 인민군 누님은 완전 독기가 올랐었지. 원래 누나가 좀 사상성이 있었거든. 형제들 중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특히 산수를 참 잘했고 미모도 빼어났어.”

만누이는 지금 부산에 있는 성당에서 노인들 목욕봉사를 하며 살고 있다. 마음이 인자하고 온유해 남을 위한 봉사를 좋아한다고 한다. 북쪽 누이는 지금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국군 점령지역을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전투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누이들-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간호사들도 서로 총을 겨누어야 했던 것이다. 그 일이 있던 후 국군 누님은 중공군이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으니 남으로 내려가자며 가족을 재촉했다. 누님을 따라나서면 안전하고 빠르게 대동강을 건너 피난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부모님은 인민군 누이를 두고 내려갈 수 없었다. 결국 누이는 국군과 함께 남쪽으로 먼저 내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인민군 누이를 기다리기 위해 부러 사동 집에서 평양 집인 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만든 공동 방공호로 옮겼다. 지금 평양의 지하철도 전쟁 시 대피하기 위한 방공호로 지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인민군과 중공군이 사리원까지 남하하고 평양 시가지를 돌며 국군 찰차에서 이승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 돌아올 테니 3일치 식량만 들고 피난하라는 것이었다.

“3일만 후퇴하면 된다고 했는데 3일이 어느새 60여 년이 되었어. 이승만에게 속았어. 중공군이 물밀듯이 내려올 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린 살기 위해서 가재도구를 고스란히 남겨두고 피난했지.

결국 누님만 두고 내려왔다.

공기중에도 살얼음이 끼는 동지선달 한파 속에서 한밤중 대동강을 건넜다. 어린 시절을 함께한 다시 보지 못할 대동강을 그때 건넜다. 그 위에서 팽이도 돌리고, 썰매도 타고, 연도 날리고, 발가벗고 헤엄치던 대동강과 칠혹의 어둠 속에서 헤어져야 했다.

그 길로 영등포까지 걸어내려갔다. 가는 길에 국군 낙오병을 만나기도 했다. 미군 전투기, 일명 썩썩기가 썩썩썩 소리를 내며 갑자기 나타나 민간인에게 총을 갈겼다. 눈 앞에서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을 직접 목격했다. 길에서 죽어 있는 피난민들도 많았다.

영등포에 도착해 기차 지붕에 올라탔다. 피난민 중엔 비탈진 지붕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었다. 떨어지는 것보다 배고픔과 추위가 더 무서웠다. 밧줄이 없어 보따리며 이불 등을

끈으로 이용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했다. 가족 단위로 굴비처럼 엮어 추락에 대비했다. 그는 아버지 곁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기차 지붕 위에선 일주일 동안의 ‘지붕공동체’가 만들어졌다. 피난민들은 개성김치며 주먹밥 등을 서로 나눠 먹었다.

“그게 밥상공동체고 지붕공동체야. 서로 추락하지 않게 잡아주고, 먹을 것 있으면 나눠 먹고 도와주면서 내려왔어. 그때는 서로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어. 요즘 사람들 자기 것 챙기고 먼저 먹으려고 얼마나 영악해. 문명은 발전했지만 완전 헛것이지.”

더러 예고 없이 기차가 떠나 잠시 정이 쌓인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했다. 객차 후미를 분리시키고 기차가 출발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가족은 기차 앞 쪽에 탔기 때문에 부산까지 갈 수 있었다. 낮과 밤들이 지붕 위에서 흘러갔다.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다. 새벽에 부산에 도착하자 “재첩국 사이소”, “오징어 사이소”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듣는 음식 이름이었다. 부산에서 삶의 주춧돌을 맨바닥부터 쌓아올리는 일이 시작됐다. 그 짐은 부지런한, 아니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에게 대부분 돌아갔다. 그 전까지 부지런했던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그때부터 허구한 날 술만 마셨다. 지금도 아버지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전쟁의 화마가 그에게 무엇을 남겼던 걸까? 아버지는 누이를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하고 말하곤 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할아버지는 형과 함께 절대 술을 마시지 말자는 약속을 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그래. 그 대신 어머니가 뼈빠지게 일만 하고 살았지. 메리야스 보따리 장사를 했던 어머니 결국 길에서 장사하다 쓰러져 죽었어. 고혈압이었지. 66년도였을 거야. 유언도 못 남기고 죽었어. 어머니도 작은 누이 한 번 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는 말을 자주 했어.”

그도 어머니 속 많이 썩여 후회가 많다고 한다. 사동에서의 일을 꺼내지 않던 만누이에게선 딱 한 번 영숙이(북한 누이)가 보고 싶다는 얘길 들었다. 매형 장례식 때였다.

“이산가족 문제는 말야,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민족 모두의 문제이지. 이산가족이 아니라도 당연히 만나서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난 우리 가족만 찾겠다는 생각은 없어. 7천만 겨레가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7천만이 다 이산가족이야.”

금강산에 가봤냐는 질문에 갈 생각도 없다고 한다. 민족이 갈라서 있는데 무슨 염치로 가냐며 민족이 하나된 이후에 가보겠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교회 주보에 적힌 ‘분단 65년’이란 글자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분단을 유지하는 통일의 장애물은 무엇일까?

“장애물을 치워야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듯 분단 장애물을 치워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부시가 북한을 미사일 공격하면 내 동무들을 향해 쏜다는 것이잖아. 미군 철군 없는 평화는 없어.”

할아버지는 왕십리 유리공장에서 일할 때 만난 아내와 딸 둘과 함께 가족을 이뤘다. 큰딸은

시집가고 작은 딸은 데리고 있다. 자식들이 대선 지지자가 다 다르다고 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어보려고 애쓰기도 했지만 지금은 포기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른 대로 만나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반공주의자인 넷째 누이와도 지금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교회에 다닌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방부제나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듯 온다. 올해 3월 문익환 목사 추모를 위해 교회에서 모란공원에 갈 때 할아버지에게 참석을 종용하는 문자가 왔는데 ‘고(故) 문익환’이란 이름자가 적혀 있었다.

“문 목사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냐. 땅 속에 묻힌 분이 아냐. 故자를 떼어 내고 대신 늦봄이란 그분의 호만 붙여야지. 문 목사님의 거룩한 뜻은 내 가슴에, 그리고 우리들 가슴에 살아 꿈틀대고 있으니까. 열사들도 모두 살아 우리들 가슴에서 부활했잖아.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변해도, 죽은 자는 그 뜻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더라도 열사들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어.”

유가협에서 후원활동을 하며 자주 만난 문 목사에 대한 애정은 각별해 보였다. 두 분은 몇 가지 점에서 닮은 모습이었다. 예수를 시대적 예언자로 인식하고 그 뜻을 따라 실천한 점과 늦은 나이에 투사의 삶을 시작한 늦봄들이란 점, 열사들에 대한 애정과 통일에 대한 의지가 각별하다는 점이 그렇다. 할아버지는 종종 열사들의 묘지를 혼자서 찾아간다.

할아버지의 통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언젠가 통일운동 단체 총회 때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한반도기를 걸어야지 왜 갈라진 민족의 국기인 태극기를 거냐고 항의한 적이 있다. 몇 년 전엔 인천에서 ‘8·15민족통일대회’가 열렸을 때, 할아버지는 친구 한상준과 함께 북쪽 대표단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뛰쳐나갔다. 안기부 요원들이 막아도 소용없었다. 서로 반갑다고 손을 잡고 얼싸안으며 대뜸 “야, 이 새끼!, 빨리 오지 않고 왜 이제 왔냐?”, “야, 그게 어디 내 맘대로 되냐?” “야, 이 새끼 너, 손 한 번 만나보자.” 순식간에 자신들도 모르게 이뤄진 상봉이고 대화였다. 그땐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생면부지였지만 서로의 이름은 ‘야’로도 충분했던 것이다.

저녁에 <과병반대 국민행동>에서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해 다시 할아버지를 만났다. 길 건너로 미 대사관 건물이 보였다. 스피커에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이 들려왔다. 시위자들은 이번 아프간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미국의 아프간 점령을 도운 현 정부에게 있다며 철군을 외치고 있었다.

“나는 촛불집회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열사들이야말로 자기 몸을 불태워서 제사로 자신을 역사 앞에 바친 거잖아. 촛불을 봐. 어둠을 바쳐서 시대를 밝히잖아. 열사들도 자기 몸을 희생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거야.”

할아버지는 작년에 교회 목사의 권유로 유언장을 미리 써두었다. 그의 유언장엔 물론 민족통일의 염원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통일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분단체제를 물려줘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평양 동무들을, 생사를 알 수 없는 누이를, 대동강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길 건너 미 대사관 건물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광주 일꾼전진대회에 다녀와서

부천평통사 영화분회 최희준

앞으로의 투쟁을 다짐하고 방향을 찾기 위해 아름답고 성스러운 고장 광주로 향하는 우리 일행 발걸음은 가벼웠다.

부천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여 4시간 반이라는 시간 끝에 민주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장 광주에 도착했다.

시간을 보니 저녁 시간이어서 우리 일행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인 광주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소개하는 각 지역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들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소개가 끝나고 강연이 있었는데 강연 내내 나는 문근영이나 비가 옆에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폭 약 4시간 동안 빠져 있었다. 어렵고 조금은 생소하지만 하나라도 더욱 알기 위해 내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빠져 들었다.

모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단 이것만은 알 수 있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지금의 시기가 아주 중요하고 놓칠 수 없는 기회이며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강연이 끝나고 조별 토론이 있었다. 새벽 1시의 토론장은 마치 한여름 태양 아래 서있는 것처럼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

전체가 모여 조별 토론 내용 발표와 그 내용에 맞는 퍼포먼스 시간을 진행했는데 지금도 그 날 밤 일만 생각하면 이마에서 땀이 난다. 조 발표자가 당근 우리 대표님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나에게 마이크를 넘겼던 것이다. 그 순간 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 하지만 역시나 대표님께서 잘 마무리를 해주어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조금 내성적이라 여러 사람들 앞에만 서면 아무런 생각이 없다.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발표를 하라하니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모든 조가 색다른 아이디어로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니 내가 우리 조에서 얘기한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새벽 2시가 넘어 뒤풀이를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을 보니 토요일 일을 마치고 온 후라 많이 피곤해 보였다. 3시 조금 넘으니까 하나 둘씩 침실로 향했다. 아마도 아침 7시에 기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배가 고파서 통닭, 맥주를 조금 많이 먹었다. 통닭 맛이 좋았으며 이 모든 준비를 해준 광주전남 평통사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

일요일 아침 7시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 후에 오전 일정을 시작했다. 강당에서 오전에 율동 배우기 및 그림 글자 맞추기 게임을 하였는데 아주 재미있었다. 다음 시간은 퀴즈 게임이었는데 난 첫 문제에서 탈락 했다. 이런 공부 좀 할 걸...

광주 망월동 묘역으로 참배행사를 위해 이동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영화 화려한 휴가의 한 장면이 떠오르며 알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다. 하늘을 보니 흐린 구름이 차츰 몰려오면서 조금씩 비가 왔다. 마치 우리들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묘역에 발을 옮긴 순간 알 수 없는 소리가 내 귀를 울린다.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더욱 노력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난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 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다시 와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보니 모두 나와 같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좋은 사람들 속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회원들과 아쉬운 작별을 했다. 곧 다시 만날 그 날을 기약하면서, 더욱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버스에 몸을 맡겼다.

우리는 광주에서 하나였고 행복했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행복한 마음을 얻었다.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었다.

이번 일꾼전진대회는 진정한 나를 찾아낸, 너무나 행복한 여행이었다.

망월(望月)동(洞)

김진영

단기 4340년 팔월 초순(음력)에 고마운, 사람다운 사람들인 평화와 통일을 여시는 분들과 함께 광주시 망월 (望月)동(洞) 그 자랑스러운 마을, 목숨 앞에 뗏뗏함과 불굴의 용기로 거듭 빛나는 분들의 유훈(遺訓)이 엄정하게 서려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감(龜鑑)이 되는 곳을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참배를 하였다.

아무려면 이렇게도 생각이 없음인가 어처구니가 없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피를 나눈 사람으로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누가 길을 막고 못 가게 막지도 않는 곳을,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을 귀로 들으면서도 무슨 까닭으로 이제야 죄스러움의 작은 몸짓이란 말인가.

이 생각 저 생각에 한 밤을 지새워도 답답하기만 하다.

국가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무엇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될 일이다. 국가는 사람을 죽여도 미안한 일만 되고 벌(罰)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 그 일(事)은 정당한 일 (事)이 되는지를 사람들의 마음에 물(問)어 보아야 될 일이다.

어느 누구도 망월동의 잘못에 대하여서 나의 잘못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무슨 야차(夜叉) 같은 도깨비가 저지른 일이 되어 있는 체로 27년이 지나가도록 사람들은 묵묵부답(??不答)이다.

무릇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야 사람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망월동 열사님들께 일 배(一杯)헌작(獻爵) 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러나 고맙고 송구(悚懼)한 것은 망월동 의 임들께서 감당(堪當)하신 무량(無量)의 아픔으로 인(因) 하여서 빛고을 광주(光州)가 이제야 그 이름과 같이 명과 실이 상부(相符)한 정의(正義)의 뜰 안에, 청사(靑史)에, 빛나는 고을이 된 것이다.

9월 15일(토)~16일(일)에 전남 광주에서 열린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투쟁 승리를 위한 평통사 일꾼전진대회’에 참석한 김진영 선생님의 글입니다.

<서울평통사>

제 2회 평화 영화제 ‘U.S. ARMY다=U.S 癌이다’를 열어요.

서울 평통사는 2006년 10월 26일(목)-29일(일)에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제 1회 평화영화제 “백더하기백”을 연인원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제 1회 평화영화제 ‘백더하기백’에 이어 제 2회 평화영화제 ‘U.S. ARMY다=U.S 癌이다’를 11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와 공동주최로 홍익대학교 와우관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2.13합의 이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북, 미, 남한의 수구보수세력조차도 평화체제 구축을 말하고 있고, 이러한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평화협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이후에도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 평통사는 미군이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분쟁에 개입하였던 사례들을 살펴보며, 과연 미군이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영화로 볼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제 2회 평화영화제 ‘U.S. ARMY다=U.S 癌이다’에 함께 하여 한반도의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천평통사

인천시의 일방적인 부평미군기지 활용계획 규탄 및 시민공원조성 촉구 기자회견

8월 8일(수)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에 종합병원을 세우려는 인천시의 활용계획 발표에 대해 ‘인천시의 일방적인 부평미군기지 활용계획 추진 규탄 및 시민공원조성을 촉구’하는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평통사 김강연 부장은 “인천시민들의 투쟁으로 되찾은 부평미군기지를 제대로 온전히 돌려 받아야 한다. 현재 반환된 미군기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부평미군기지과 비슷하게 폐차장등으로 사용된 부산의 하야리아 기지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개발계획을 세우기 전에 환경오염 치유를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0일에 예정된 인천시 공청회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인천시가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평미군기지가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후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8월 10일 진행된 부평미군기지 활용방안 관련 주민공청회는 부평구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회원교육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회원교양을 운영위원과 분회원을 중심으로 총4회 진행하였습니다. 네차례의 교양을 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평화협정 문제가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고, 지금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여성분회 ‘천지’

8월 모임에서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의 문제점을 9월 모임에서는 서해상 해상경계선-NLL 문제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백요순 회원은 전북평통사에서 주최한 중국역사기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 방치된 모습에 가슴이 아팠고 백두산에 올랐을 때는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동분회

8,9월 정기모임은 평화협정 관련 회원교양으로 대신 진행하였습니다.

통일분회 ‘부싷돌’

유엔사 관련한 학습을 진행하였고, 늦었지만 8월에 생일인 박종익 회원과 정재훈 회원 생일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은직 분회장은 ‘좋은엄마아빠모임’의 요청으로 DMZ평화기행 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이은직분 회장 집에서 집들이겸 분회단합대회를 하였습니다.

산행모임

9월에는 계양산 능선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전에 비가 와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운치 있는 가을산행이었습니다.

<부천평통사>

신정길 대표는 신병치료차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회원들의 이야기마당으로 대체합니다.

광주, 평통사일꾼대회 참가

<대전충남평통사>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 축구 대전역앞 선전전

운영위 결의에 따라 대북선제공격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대전역앞 선전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선전전은 대전충남실천연대, 대전615청년회, 대전충남양심수 후원회 그리고 대전충남 평통사의 실무자와 회원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선전전에는 원용철 공동대표님, 유병규·임수규 운영위원님, 좀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고준택 회원님, 송지영 회원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혁이 파이팅!!

며칠전에는 난데없이 충무체육관에 갔었습니다. 그 이유가 재미있는데요, 얼마전 고준택 회원님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고준택 회원님 아들인 초등학교 6학년생인 동혁이도 함께 식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동혁이가 학교 육상선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9월 11일 충무체육관에서 시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고준택 회원님은 그날 일이 있어서 못간다고 해서 제가 별 뜻없이 “그럼 삼촌이 갈까?” 했는데 동혁이가 “정말요? 정말 오실거예요?” 하더라고요. 괜히 쳐다보는 그 눈빛을 마다할 수가 없어서 “그럼 가지. 아빠대신 삼촌이 가서 열심히 응원해줄게” 하고 철썩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마침 그날은 유병규 운영위원님도 시간이 된다고 하셔서 둘이 가게 되었지요. 운동장에 들어서서 경기가 진행되는 곳에 가보니 마침 동혁이가 시합을 하려는 참이었어요. 초등부

800M 예선경기였는데(아이들한테는 장거리에 속한다고 하더군요), 동혁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좀 말라서 잘하려나 싶더라고요. 출발 신호가 울리고 시합이 시작되었는데, 한바퀴를 다 돌 때까지 동혁이는 끝에서 두 번째로 뛰는 거예요. 속으론 좀 애가 타서 동혁이가 우리 앞을 지날때 “동혁이 파이팅!”을 외쳤는데, 그 말을 들었는지 속도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 코너를 지나 결승선으로 들어오는데 다른 아이들을 하나하나 제치더니 2등으로 결승선을 끊었어요. 얼마나 신이 나던지.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제가 몸치라 운동이나 운동 선수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젠 동혁이 팬이 되었답니다.^^

오후에 있는 결승경기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봤는데,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축하죠^^

동혁이는 아빠랑 둘이 살아서 외로울 법도 한데 아주 씩씩하고 착한 아이랍니다. 언제 동혁이 경기있을 때 같이 가서 응원하실 생각 없으세요?^^

대전충남 평통사는 그 동안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 8월 22일, 대전역광장에서 진행된 을지포커스렌즈연습 반대 거리선진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유병규,임수규,고준택,송지영,박석진/참가단체:대전충남실천연대,대전615청년회)
- 8월 24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진행된 홍근수상임대표 고회기념논문집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2”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8월 26일, 을지포커스렌즈연습 중단촉구 시민등반대회(청계산)에 참석하였습니다.
- 9월 11일, 한미FTA협정안 국회비준상정절회와 국회의원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충남도청/유병규,박석진)
- 9월 13일, 영동 매곡면의 미폐탄약재처리시설무효확인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였습니다.
- 9월 15일~16일, 평통사일꾼전진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조주형,박석진)
- 9월 18일, 8차운영위를 진행하였습니다.
- 9월 19일, 대전경실련 이전개소식에 참석하였습니다.(유병규, 박석진)
- 9월 21일, 한미FTA관련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였습니다.(대전법원)

<안동평통사>

그간 운영위에서는...

8월 1일, 김창환 대표를 비롯하여 배용한, 이상윤, 최난희, 강석주, 피재현, 한철희 운영위원이 참석한 운영위에서는 김판태 팀장이(평통사 회원사업팀)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후 운영위에서는 북핵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둘러싼 정세 동향과 남, 북측의 대응에 대해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이 민족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 단위에서도 주한미군 철수가 담보되는 평화협정 체결 투쟁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9월 5일 오후 8시 나섬학교에서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5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안동 시민학교 사업”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김종일 사무처장(평통사)이 “평화협정 체결 투쟁의 전망과 실천계획”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4일 진행된 운영위에서는 김창환 대표를 비롯한 6명의 운영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2일 ‘평화협정의 이해와 전망(강사 : 강정구 교수)’ 등 5개 강좌를 개설하는 “5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안동 시민학교 사업”에 30~40여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판태 팀장이 ‘작전통제권 환수 1만인선언’, ‘11월 3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규탄집회 등 SCM 대응투쟁계획에 설명하였으며, 안동평통사에서는 300명을 목표로 시민 선언을 조직하는 등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군산평통사 준비모임

공식적 활동을 시작하다!!!

지난 9월 8일 군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진행한 “군산미군기지 확장 저지 9.8 평화 대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군산공항 북쪽 활주로 끝인 ‘남수라’를 출발하여 화산, 하계 포구에 이르는 장장 6km에 이르는 대 행진을 문규현 상임대표, 변연식 공동대표, 김종일 사무처장, 김판태 회원사업 팀장과 멀리 광주 전남 평통사에서 배종렬 대표님을 비롯한 광주 전남 평통사 회원들, 유승기 군산 평통사 준비 모임 대표님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힘찬 연대와 결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9월 16일 늦은 7시 군산 평통사 준비모임이 주최한 <평화협정 체결, 미군 없는 한반도 만들기 1차 평화카페>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본부 및 전북 평통사, 군산 평통사 준비모임 회원 40여명이 모여 즐겁고, 유익한 단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유승기 준비모임 대표는 “군산 평통사가 준비 모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비록 적은 회원이지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데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도 군산 평통사와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날 평화카페의 주요 행사로 ‘문정현 신부님이 말하는 평화이야기’를 진행하고 “앞으로 10년의 싸움이다. 지금은 저들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힘이지만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 나가자”는 문정현 신부님의 강력한 호소에 힘찬 결의를 다지는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문성주 군산 농민회 회원님과 참주거연대에서 홍경갑님께서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셔서 군산 평통사 준비모임은 회원 31명, 13명의 후원회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광주전남 평통사

광주전남 지역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바람을 일으키다.

광주 전남 평통사는 최근들어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강정구 교수 강연회 열풍을 불러넣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강정구 교수 나주 강연회(120여명 참가)를 시작으로 8월 27일 무안 강연회(130~140여명 참가), 9월 17일 광주 강연회(50여명 참가)를 진행하였고, 10월 2일 광주 전남노회 교육사회위원회 주최 강연회, 10월 12일 목포 지역 강연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에서 이성열 목사와 고흥문 목사, 이윤옥 선생님과 이보영 선생님께서 회원으로 가입하셨고, 목포에서 김순중 전도사님께서 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광주 전남 평통사는 10월 29일 광주지역 평통사 회원 모임을 비롯하여 무안·목포권, 여수·광양·순천권과 나주권 그리고 해남을 비롯한 각 지역에 광주 전남 평통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남부평통사

준비위원 모임

지난 9월 5일과 10월 2일 다솜교회에서 장창원 목사, 현호현, 민영완, 장도정, 이유빈 등 준비위원과 김판태 회원사업팀장이 모여 경기남부 평통사 준비위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후 사업에 대한 토론을 통해 ▲ 10월 31일 “평화협정 체결의 과제와 전망” 강정구 교수 강연회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 촉구 1만인 선언 참여 ▲ 11월 24일 평택미군기지 순례 등의 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후 경기남부 평통사 건설 흐름으로 12월 준비위 결성, 2008년 1월 사무실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 2월 창립총회 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10월 5일 회의에서는 김판태 회원사업팀장의 발제로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과제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대응 투쟁계획”에 대한 정세교양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7일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 기공식에 한미 국방장관의 참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남부 회원들과 함께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집회에 참가하여 강력히 투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알립니다]

10월 17일(수) 오후 7시 사무실에서 ‘작전통제권 제대로 돌려받자’라는 주제로 회원교육이 있습니다.

10월 23일(화) 오후 7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와 함께하는 2007 평화카페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쭈장소 : 삶이 보이는 창(동암역)

쭈내용 : 이시우 선생의 사진을 통해 본 유엔사 문제(작전통제권 환수의 진실과 거짓)

[알립니다]

10월 대전충남평통사 산행에 함께 하세요^^

며칠 비가 계속 내리더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대전충남평통사는 오는 10월 13일(토) 서울 인근 경기도 성남의 청계산으로 기행 및 산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굳이 기행 및 산행이라고 한 것은 청계산은 높지는 않지만 산세가 수려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산에 동북아

최대규모의 전쟁지휘소가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8월 20일~31일 까지 진행된 한미간의 대북공격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을 총지휘했던 곳이 바로 이 청계산에 30만평 규모로 건설되어 있는 거대한 한미연합사의 전쟁지휘소였습니다.

평통사는 지난 을지포커스렌즈훈련기간에 이 전쟁지휘소(공식명칭은 TANGO : Theater Army Navy Ground Operation) 정문앞에서 이 군사연습에 반대하는 각종 집회와 퍼포먼스, 1인시위, 등반대회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천에 참여하면서 이나라 수도의 코밑에, 그리고 아름다운 청계산에 이런 거대하고 위험한 전쟁지휘소가 있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기행을 준비하면서 대전충남지역의 많은 분들도 함께 가서 기지주변도 둘러 보며 성큼 다가서고 있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때인지라 기행을 갈 즈음이면 청계산의 단풍도 곱게 물들어 갈때라 산행을 하기에도 좋은 곳이라는 생각도 결정에 한 몫했구요. 이런걸 일석이조라고 하나요.^^

10월 산행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정안내

10월 13일 (둘째주 토요일)

09:00 대전역 광장에서 모여 전세버스(한밭관광)로 출발

11:30 청계산 등반로 입구 도착

11:30~12:30 점심식사 (청계산 입구 식당에서 맛있는 산채음식으로^^)

12:30~16:00 TANGO둘러보기 및 산행 (기행해설 : 평통사본부 실무자)

16:00~16:30 간단한 소감 나눈후 승차, 귀가

18:30 대전도착, 아쉬운 작별 (다음에 또 만나요^^)

쭝참가비 : 2만원(어른기준 중식,교통비 포함 / 초등학생 이하 1만원)

쭝참가신청 : 042-635-5812

(담당자-박석진)

[알립니다]

5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안동 시민학교

“민족주의 이후의 민족”

일시 : 2007년 11월 2일 ~ 30일,

매주 금요일 19:00~21:00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 본관

세미나실 외

주최 : 안동평통사

수강료 : 전 강좌 5만원(자료집 제공)

문의 : 강석주 사무국장

011-501-7376

1강 11/2(금) 평화협정의 이해와 전망(강사 : 강정구 교수)

2강 11/9(금) 지구제국과 권정생(강사 : 조정환)

3강 11/16(금) 북측의 민족주의와 미래(강사 : 박무식 교사)

4강 11/23(금) 이주여성과 다문화주의(강사 : 이인경-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어울림 소장)

5강 11/30(금) 안동지역운동의 성과와 과제(사회 : 피재현 안동평통사 실장/ 패널 : 배용한, 이재익, 엄영애 등)

[알립니다]

전북평통사 회원 단합대회

회원들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아래와 같이 갖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07년 10월 7일(일)

오후 3시

장소 : 영등동 근린공원

전북 평통사 2007년도 평화학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평화학교를 개최합니다. 이번 평화학교는 한비야 평화운동가, 김민웅 교수, 김상근 목사, 정창현 교수 등을 강사로 모시고 약 4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기간내에 비무장지대 평화기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7년 11월 중

장소 : 미정

문의처 : jbcks@hanmail.net

063-832-0018

우주의 무기화와 인디아 (Weaponisation of Space and India)

제이 나라야나 라오(J. Narayana Rao)

번역: 최성희

미국으로 기울어진 최근 인디아의 외교정책은 국제평화운동의 주의를 끌고 있다. 중립성이나 비동맹운동 또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지 표명마저 사라진 것은 인디아의 오랜 반제국주의가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 이슈에 있어 이란에 대한 반대투표를 한 것, 미국의 이라크 철수 문제를 비롯, 미국과의 핵거래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 미국의 우주 무기화와 미사일방어 프로그램 등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자기기만적 관점을 보이는 제반의 사실들이 그 증거다.

이러한 이슈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도의 로켓 등 우주기술에서의 진보가 인도를 미국 우주무기화의 동반자로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디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와 우주 프로그램의 무기화를 결코 심각하게 비판한 일이 없다.

인디아는 민간용 우주프로그램에서 꾸준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인디아는 몇 개의 위성들과 위성발사 차량 등을 개발했다. 또한 인디아는 애그니(Agni) 1, 2 미사일을 실험했다. 첫 번째 중거리 유도미사일(ICBM) '애그니3'은 실험을 기다리며 준비 중이다. 그것은 3000km 사거리에 1.5톤의 전쟁용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2007년 4월 2일, 인디아는 인디아-러시아 합작으로 브라모스(Brahmos)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다. 2007년 1월 22일에는 12일 전부터 궤도를 맴돌던 위성을 불러옴으로써 우주 캡슐 복원 실험에 성공했다.

달 임무를 위한 찬드라얀-I(Chandrayan-I)은 2008년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 것은 525kg으로 극점 위성발사 차량에 의해 발사될 것이다. 인디아 우주연구조직(India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에 의하면 이 임무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 로봇들을 내려 놓는 것을 포함, 더욱 야심적인 행성임무들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 우주항공국(NASA)는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인디아 우주연구조직과 결합해 왔다. 인디아 우주연구조직과 미 우주항공국은 2008년 3월까지 독특한 달 광산 지도그리기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결합해왔다. 인디아는 또한 2015년까지 인디안인을 우주에 보낼 것을 숙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자체적으로 위성을 띄울 프로그램이 없는 인디아 공군은 우주에 우주 항공명령국(Aerospace Command)을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공군 최고원수 타기는 “모든 미래의 전쟁에 우주가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우주에 자산이 있으면 누군가 그것들을 고강도 또는 저강도 타격(hard kills or soft kills)등을 통해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1월 2일에는 “인디아 공군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우주탐험을 하고 우주자산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인디아가 우주 항공국가가 된 이후 우주항공명령을 위한 핵심 그룹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중략) 인디아 공군이 우주항공명령국 설계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외무부와 국방부 등 인도 정부는 견해가 다르다. 중국이 올해 1월 11일 반대 위성(anti-satellite)으로 지구에서 860km 떨어진 궤도의 낡은 위성을 쏘았을 때도 인디아 정부는 외계 우주는 무기가 침범할 수 없는 성소임을 명확히 하고 세계 공동체가 우주의 평화목적을 위한 국제법 체계를 강화

하자고 밝혔다.

올해 2월 뉴델리에서 36개국 공군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제우주항공력 세미나 축하 연설에서 외부업무장관인 프라납 무케르지는 “외계우주자산의 안보와 안전이야말로 지구적 경제적, 사회적 개발에 결정적 요소이다. 우리는 외계 우주의 평화 목적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국제 법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의 진전들은 우리가 현재 우주의 국방관련 사용과 실제 우주무기화 사이의 아슬아슬한 선을 걷고 있음을 보인다. 우주항공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무기들로부터 우주를 성소처럼 보전하고 우주가 인류의 공동 평화 유산이 되도록 경계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프라납 씨가 말한 것이 인디아의 공식 정책이며 인디아가 미국의 우주 무기화에 명확히 반대하는 것은 가장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인디아는 미국의 우주 무기화에 반대하도록 전 세계 민중의 의견을 모아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인디아는 미국의 우주무기화에 반대하고 우주가 평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러시아, 캐나다, 중국 등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

회비 후원금 / 감사합니다.

중앙

[8월]

[대표/임원] 강정구 김홍수 문규현 박용일 박용일 배종렬 변연식 이일영 임종철 정순영 홍근수 홍창의

[후원회원] 박석환 박춘원 서경숙 유영섭 이광수 이성호 이은혜 이충형 이현수 임동명 정유철 최문숙 최재영 하정일 한희숙

[9월]

[대표/임원] 강정구 김성윤 김성윤 김홍수 문규현 배종렬 변연식 이일영 임종철 정순영 홍근수 홍창의

[후원회원] 박석환 박춘노 박춘노 박춘원 서경숙 유영섭 이광수 이성호 이은혜 이충형 이현수 임동명 정유철 최문숙 최재영 하정일 하정일 한희숙

서울 평통사

[8월]

[회원] 고이지선 공동길 권병길 권영무 권혁문(2개월) 김경자 김동훈 김명일 김상진 김석민 김석제 김성윤 김성준(2개월) 김순정 김영진 김종일 김종일 김중한 김지수(8월) 김지영 김진환 김채석 김화수 문성현 박석분 박정아 박종국 박종권 박종기 박종양 박준희 백지은 백차현 서동빈 서영석(2개월)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화정 신재희 오갑성 오미정 우미정(2개월) 위선남(2개월) 유승현 김준경 유영재 유현규 이경목 이경아 이경옥 이경호 이민규 이병일 이선영 이성원 이수정 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윤영 이인호 이인호 이종남 이준호 이행복(2개월) 이현규 이형수 이해영 이해진 박승렬 임동원 임보라 장도정 장성식 장희수 전영규 정강민 이진아 정귀남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신화 조영래 조영희 조요환(2개월) 조창현 최문희 최소영 최영환(2개월) 추정수 한문덕 한호석 허정섭 허학범(2개월) 황규금(2개월) 황도연 황윤미

[후원회원] 강양원 강영옥 고경심 광상진 김기환 김나희 김미영 김병기 김상중(2개월) 김석순 김성원 김세옥 김승현 김옥희(2개월) 김유중 김진미 김충례 김혜숙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나현대 나혜영 남인순 노은아(2개월) 문경희 박경혜 박사라 박승환 박후임 서정호 서황석 손은정 송금심 송혜진 순상환 신만호 신재성 안지성 여혜숙 오혜경 윤민재 윤영수 이강택 이경희 이관용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명학 이상근 이상희 이소영 이수철 이순혁 이승무 이애용 이영옥 이인희 이정태 이창호 이해삼 이해경 이해순 임영인 정석빈 정윤정정은선 정찬길 천상배 최용기 하보애(2개월) 한기황 한상근 한선영 한중현(2개월) 허경자 홍만표 홍승완 홍혜자 황호정

[9월]

[회원] 강유겸 공동길 권병길 권영무 권혁문(2개월) 김경자 김동훈 김명일 김상진 김석민 김석제 김성준 김순정 김슬기(2개월) 김영진 김은아(2개월) 김종일 김중현(2개월) 김중한 김지수 김지영 김진환 김채석 김현미 김현애 김형예(2개월) 김화수 남미영 남미

영(2개월) 문석우(2개월) 문성현 박규상 박석분 박정아 박정자(2개월) 박종국 박종권 박종기 박종양 박준희 박희정(2개월) 백지은 백차현 서동빈 서영석(2개월) 서창석 선소진 선순단 손윤희(2개월) 손화정 신재희 오갑성 오기성 오미정 원응호(2개월) 위선남 유승현 김준경 유영재 유현규 윤영일 이경목 이경아 이민규 이병일 이선영 이성원 이수정 이수정 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윤영 이인호 이종남 이종민 이준호(2개월) 이행복 이현규 이형수 이해영 이해진 박승렬 인민지 김종완 임동원 임보라 장남희(2개월) 장도정 장성식 장속도(2개월) 장희수 전영규 정귀남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신화 정준영(2개월) 조영희 조요환 조창현 지안나(2개월) 최문희 최소영 최영환 추정수 한문덕 한호석 허정섭 허학범(2개월) 황규급(2개월) 황도연 황윤미

[후원회원] 강양원 강영옥 고경심 광상진 김기환 김나희 김미영 김병기 김석순 김성원 김세옥 김승현 김옥희 김용순 김유중 김진미 김충례 김혜숙 김희국 김희영 나혜영 남인순 노은아 문경희 박경혜 박민호(2개월) 박사라 박승환 박은봉 박후임 변인식 서보혁 서보혁 서정호 서황석 손은정 송금심 송혜진 순상환 신만호 신재성 안지성 여혜숙 오혜경 윤민재 윤영수 이강택 이경희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명학 이상근 이상희 이소영 이수철 이순혁 이승무 이애용 이영옥 이인희 이정태 이창호 이해삼 이해경 이해순 임영인 정석빈 정윤정정은선 정찬길 천상배 최용기 하보애 한기황 한상근 한중현 허경자 홍만표 홍승완 홍해자 황호정

부천평통사

[8~9월]

강미경 강용애 강용환 강혜선 광노충 구현모 권혜숙 김남훈 김덕근 김미영 김민옥 김성근 김성용 김성훈 김성희 김숙희1 김숙희2 김인영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현숙 노은하 노철성 문은정 박병준 박숙경 박용섭 박은영 방정미 배영미 백창석 서경숙 서명숙 서은지 서혜숙 석의정 성명수 성명은 신장호 손석환 손종옥 양난영 유길준 유승우 유정엽 윤영근 윤재명 이경숙 이리나 이상수 이상원 이숙주 이숙진 이영재 이옥화 이진혁 이현주 이해련 임숙영 임채경 임현순 장동환 장미숙 장인옥 정경화 정상희 정용진 정현수 정창욱 조미옥 조영선 조지선 주명숙 주영일 주정숙 지은희 차복례 최경순 최은주 최희준 최창수 현낙철 현지환 홍갑표 홍진표 홍제숙 홍혜숙 황영신 황영희 황희종 허호인

인천평통사

[8월]

[회원] 고영남 광준경 구완모 김경민 김경희 김대영 김백수 김병철 김보희 김선미 김영익 김원식 김은영 김은옥 김의균 김의숙 김인식 김일희 김정녀 김주숙 김중찬 김판태 김호영 김희겸 문한나 박광선 박순길 박승문 박유순 박인호 박종익 박창훈 백요순 서경석 서동완 서성덕 서재훈 서화조 소예숙 손선재 송영주 송재철 신동훈 신창균 신필녀 심상봉 심자섭 안용국 여영석 오상훈 오수정 오현곤 유한수 윤인중 윤화심 이경준 이무용 이영성 이용수 이은순 이은직 이재운 이종일 이종훈 이준걸 이진권 이진실 이천직 이춘식 이현주 임희호 장근수 장금배 정만진 정송호 정재훈 정한식 정형서 조남순 조성혜 조승철 조승현 조인휘 진재환 차광호 최문석 최장수 최종락 최현호 한연숙 한연숙 홍 중

[후원회원] 김금옥 김대인 김동운 김명숙 김명중 김정대 김지영 김창한 김태정 김희숙 문병호 박기현 박상태 박상호 박영민 서경혜 서덕용 소병욱 송경평 송한석 신정순

심이섭 심현우 안용원 오종춘 오혜영 유미자 유재원 이거중 이미경 이석기 이승미 이옥희
이은희 이전범 이형진 임경희 임병구 전영우 정동근 정명락 정백영 정연실 정영수 정유선
정윤엽 조정란 조태영 천재용 최명희 최석진 최영미 최 웅 최원식 하태준 홍학기 황선
하

※ 김일회 신부님께서 상근자들 모니터등 비품 구입을 위해 70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이
은직 분회장님은 통일기행 해설 진행 후 받은 해설사비 10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위의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회원] 고영남 곽준경 구완모 김강연 김경민 김경희 김대영 김백수 김병철 김보희 김선미
김영역 김오섭 김은영 김은옥 김의숙 김인식 김일회 김정녀 김종오 김주숙 김판태 김호영
김희겸 남익현 두현진 류성훈 박광신 박순길 박승문 박유순 박인호 박종익 박창훈 배문중
백요순 서경석 서동완 서성덕 서재훈 서화조 소예숙 손선재 송영주 송재철 신동훈 신창균
신필녀 신현범 심상봉 심자섭 여영석 오상훈 오현곤 오혜란 유정섭 유한수 윤인중 윤화심
이경준 이무용 이영성 이용수 이재운 이종일 이종훈 이준걸 이진권 이진실 이천직 이춘식
이현주 임희호 장광수 장근수 장금배 정만진 정유성 정재훈 정한식 정형서 조남순 조성혜
조승철 조승현 조인휘 지정희 진재환 차광호 최문석 최영준 최장수 최종락 최현호 한연숙
홍 중

[후원회원] 고대권 김금옥 김대인 김명숙 김명중 김정대 김지영 김태정 김형식 김희
숙 문병호 박기수 박상태 박상호 박영민 서경혜 서덕용 소병옥 송경평 송한석 신정순 심이
섭 심현우 안용원 오종춘 오혜영 유미자 유재원 이거중 이미경 이석기 이승미 이옥희 이은
희 이전범 이형진 임병구 임용렬 전영우 정동근 정명락 정백영 정연실 정영수 정유선 정윤
엽 조정란 조태영 천재용 최영미 최원식 하태준 홍학기 황선하

대전충남평통사

[8월]

강대훈 고양우 고종광 권선필 권 인 김기수 김미경 김미옥 김복실 김성자 김오경 김재봉
김 제선 김종필 김중찬 김지수 김홍엽 김홍수 류재중 문양로 문영국 박도신 박병천 박석진
박영칠 박철민 소종영 손용감 송관옥 송신근 송원준 송인준 신성정 신현정 엄기문 여인철
원용철 원용호 유영민 유요열 유윤우 유장환 유한경 윤상렬 윤영덕 이경아 이번영 이영석
이용구 이재원 이종명 이창복 이태훈 이화자 임수규 전기룡 정상건 정성삼 정순희 정한섭
조봉현 조봉현 조부활 조성균 조주형 함필주 함필주

[9월]

강대훈 고양우 권선필 권 인 김기수 김미경 김미옥 김복실 김성자 김오경 김재봉 김제선
김종필 김중찬 김지수 김홍엽 김홍수 류재중 문양로 박도신 박석진 박영칠 박철민 서영완
서영완 소종영 손용감 손정희 송관옥 송신근 송원준 신성정 신현정 엄기문 여인철 오은아
오은아 원용철 원용호 유성호 유영민 유요열 유윤우 유장환 유한경 윤상렬 윤영덕 이경아
이번영 이영석 이용구 이재원 이종명 이지연 이창복 이춘자 이태훈 이화자 임수규 전기룡
정상건 정순희 정한섭 조봉현 조부활 조성균 조주형 하일청 함필주

안동평통사

[8월] 권기찬 권주원 윤지홍 정복순 최난희 최윤희 최형석 (CMS 출금회원만)

[9월] 강민석 권기찬 권영숙 권주원 윤지홍 정복순 조선아 최윤희 최형석 (CMS 출금회원만)

전북평통사

권선희 라귀인 문영용 김종혁 김동욱 김대송 김대송 김 삼 김아영 김명근 김연태 김연태 김경수 김판철 김효근 김미경 김준근 김진호 김성훈 김미라 배철환 박은경 박용호 박영천 박충례 방용승 송상구 신용우 신수철 서현선 서정대 서정대 서동환 채운석 장수나 장창완 장완수 전재현 전해숙 정은주 정용용 조성옥 조성철 전용균 전호일 전호정 조성숙 조광범 조수미 정태웅 이세우 이현수 이현수 이금림 이규태 이진규 오인빈 이상호 이연아 이중구 이연아 이병기 이재홍 이수정 유승기 우훈식 유은선 유재임 이장우 이정현 이경진 이성교 이용숙 이명자 이병식 오창규 오기주 유희탁 양지연 양종진 안경숙 최영목 최민욱 최수경 최수경 최희숙 채운석 황인철 황인철 황영하 황현정 허자영 허정길 현주억 추현주

광주전남평통사

[8월]

김광훈 김덕현 김덕현 김명훈 김용성 김희용 노준복 박석중 박승욱 배요섭 배종열 서창호 안희만 오승주 유진이 이철우 장관철 장현권 정길주 최병상 최종률 최진연 최창현

[9월]

김광훈 김덕현 김명훈 김명훈 김미경 김용성 김희용 노준복 박석중 박승욱 배요섭 배종열 서창호 안희만 오승주 유진이 이보라 이성열 이윤옥 이재창 이철우 장관철 장현권 전영남 정길주 최병상 최종률 최진연 최창현

경기남부모임

[8월] 우경태 민영완 김효순 이은우 정인교 황재순 장창원 이수용 이우곤

[9월] 이은우 정인교 황재순 장창원 이수용

부산경남지역 회원 김건우

대구 회원 백창욱

연구소

[8월]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김종수 김태준 신정길 임승계 조현정 홍근수 홍영진

[후원회비] 강진희 고효완 김기오 김미령 김숙연 김창범 김해영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성경숙 성정혜 이범준 이선엽 이왕재 정향란 한양재 한혜영

[9월]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김종수 김태준 임승계 조현정 홍근수 홍영진

[후원회비] 강진희 고효완 김기오 김미령 김숙연 김창범 김해영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성경숙 성경혜 이범준 이선엽 이왕재 정향란 조미향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 * 중앙과 각 지역 평통사 회비납부 계좌는 회지 뒷 표지를 참조하세요.
- *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고 허세욱 열사 추모기금 모금 현황

[추모기금을 내실 계좌 : 국민은행 055201-04-105687 홍근수]

8/8~10/10 현재 120,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누계 : 10,455,340원)

고 허세욱 열사를 위해 성금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성금을 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재환 10만원

이종일 2만원

그동안 지출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석성묘비용 43,500원

추모사업회 분담금 2,000,000원

4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결산보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금누계 : 10,455,340원

지출총계 : 7,372,740원

잔액 : 3,082,600원

허세욱 열사를 위한 성금은 추모사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통일전쟁’ 등 한국현대사의 ‘금기사항’들에 대한 정면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부른 강정구(62·사진)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평화·통일연구소 안팎의 연구자들과 함께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2> (한울)라는 책을 냈다. 이번 책은 통일·평화운동의 선구적 실천가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을 설립하고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근수 목사 ‘고희기념문집’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미군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권 이양은 한국 쪽이 자발적으로 넘긴 게 아니라 미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까지 누구도 그게 비자발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다. 이양일도 1950년 7월 8일로, 알려진 것보다 더 빨랐다. 6월 29일 현장 파악차 한국에 온 맥아더가 미군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작전지휘권 이양을 요구했고 7월 8일 대전협정을 통해 넘어갔다.” 이 책 제1장에 수록된 ‘작전통제권 상실과정과 한국군의 탈주권화’(연구소 박기학, 고영대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썼다)는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강 교수는 또 군 지휘권은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인데도 이양이 “국회 동의나 국무회의 의결, 심지어는 외무부의 논의 등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지금과 같은 기형적 대미종속체제에서는 알맹이를 뺀 기만적 반환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번 책 제목에 ‘2’가 붙은 것은 2005년 초에 연구소가 낸 같은 제목의 책(그때는 ‘1’이란 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후속작업이기 때문이다....

<한승동 선임기자, 2007년 9월 1일 한겨레신문 기사 중에서>